



〈신예 좌완 양현종〉

‘거포 본능’ 살아났다

KIA타이거즈 작년과 투·타 비교해보니

6위에서 3위까지 KIA 타이거즈의 1년. 7월 무등야구장 경기장에서 예정된 LG 트윈스와의 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KIA 타이거즈가 잠시 숨을 고르며 전력을 가다듬었다.

KIA는 7월 좌완 진만호 대신 박정규를 엔트리에 합류시켰고, 김형철과 이호신의 자리에는 김선빈과 장성호를 불러들였다.

7월 현재 78경기를 치르며 전체 일정(133경기)의 59%를 소화한 KIA는 0.513의 승률(40승34패4무)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78경기에서 35승43패의 전적으로 5월에 미치지 못하는 0.449의 승률을 달성하며 6위에 머물던 것에 비하면 발전된 모습이다.

지난해에 비해 마운드는 한층 견고해졌고, 타선은 더 목작해졌다.

4.16의 평균자책점으로 전체 4위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KIA는 3.88의 평균자책점으로 ‘벌떼 마운드’ SK(3.53)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실점은 똑같이 347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4위, ‘타고 투저’가 눈에 띄는 올해는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윤석민·한기주의 부진 속에서도 안정된

타을 떨어져도 홈런포 광광

용병·신예좌완 철벽 마운드

팀순위 6위→ 3위 수직 상승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두 용병과 신예 좌완 양현종의 꾸준한 활약 덕분이다.

구토스·양현종이 최근 등판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세 선수는 KIA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19승을 합작했다.

타선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보다 홈런의 폭발적인 증가다.

극심한 ‘홈런가뭄’에 시달리며 지난해 팀 홈런 꼴찌(48개)의 불명예를 안았던 KIA는 올 시즌 77개의 홈런포를 터트렸다. 지난해 동기간에 기록했던 30개보다 61%나 증가한 수치다.

최희섭은 15개의 홈런으로 팀내 1위를 달리고 있고, 2년차 나지완과 투기 안치홍이 각각 13개·11개의 홈런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해 78경기에서 기록했던 0.274의 팀타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0.257의 타율을 가지고도 득점이 350점에서 378점으로 상승한 데는 장타의 증가한 몫을 하고 있다.

타선의 중심에는 새로운 ‘해결사’ 김상현이 있다. LG에서 전정팀 KIA로 돌아온 김상현은 62개의 안타로 무려 60타점을 만들어냈다. 2루타가 17개 3루타가 1개 그리고 홈런이 11개다. 이중 4개의 홈런은 만루 홈런이었다. 김상현은 영양가 만점의 한방으로 팀 타율 꼴찌의 KIA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플레이의 세밀함과 기동력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IA는 7월 현재 60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실책 부문 1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47개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실책수가 늘었다.

테이블 세터 이용규·김원섭의 부재 속에 팀 도루 갯수도 97개에서 75개로 줄었다. 올 시즌 팀내에서 김원섭 홀로 12개의 도루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짜임새 있는 공격을 위한 세밀함과 기동력이 55경기를 남겨둔 KIA의 숙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만루포 사나이’ 김상현〉

“이젠 메이저 왕관”

신지애·김인경 등 한국군단 내일 US여자오픈 출격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땀을 떨치고 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군단이 이례는 최고 권위의 대회 US여자오픈골프대회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출격한다.

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현의 사우던밸리 골프장 울드코스(파71·6천740야드)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은 올 시즌 세번째 열리는 메이저대회. 대회의 전통이나 규모로 볼 때 메이저 중의 메이저대회로 꼽힌다.

올 시즌 한국선수들은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2승을 책임졌고 오지영(21), 김인경(21·하나금융), 이은정(21)이 1승씩을 올려 모두 5승을 합작했지만 메이저대회 우승컵은 없었다. 앞서 열린 두개의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다른 선수의 우승을 지켜봐 왔던 한국 선수들은 이제 이번엔 열리는 US여자오픈과 이달 말 브리티시여자오픈 두개의 메이저대회만을 남겨 놓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선수들의 무서운 상승세를 볼 때 메이저대회의 왕관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 올 시즌 한국자매들은 매 대회 우승권에서 경쟁을 벌여 왔고 그 중심에는 1988년생 영건들이 있었다. 우승컵을 차지한 신지애, 오지영, 김인경, 이은정이 모두 1988년생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또 지난해 챔피언 박인비(21·SK텔레콤), 김승희(21), 지은희(23·힐라코리아), 이선화(23·CJ) 등 20대 초반의 선수들은 언제라도 우승컵을 차지할 준비가 돼 있다. 또한 한

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작년 시즌 상금 랭킹 5위 안에 든 서희경(23·하이트)과 안선주(22·하이마트), 최혜용(19·LG)이 출전권을 받았다.

▲신지애-오초아, 상금왕 경쟁 후끈= 신지애는 6일 제이미 파 오웬스 코네티컷 클래식에서 공동 17위에 그쳤지만 101만8천달러로 시즌 상금랭킹 1위를 지켰다. 하지만 US여자오픈을 시작으로 에비앙마스터스, 브리티시여자오픈은 일반 대회의 골절이 너른 총상금을 자랑하는 특급대회다.

US여자오픈과 에비앙마스터스에는 총상금 325만달러가, 브리티시여자오픈에는 220만달러가 걸려있어 이 3개 대회의 성적에 따라 상금왕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74만달러로 5위에 밀려 있지만 특급대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세계랭킹 1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버르고 있다.

▲올해도 거리와 싸움= 작년 US여자오픈이 열렸던 미네소타주 에디나의 인터리켄 골프장은 6천789야드로 대회 사상 가장 긴 전장을 자랑한다.

올해 대회를 개최하는 사우던밸리 골프장 울드코스는 6천740야드로 작년 대회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파71로 코스가 구성됐다. 작년 인터리켄골프장이 파73으로 세팅된 것과 비교하면 전혀 짧은 코스가 아니다.

435야드짜리 2번홀(파4)은 거리도 만만치 않아 두번째 샷을 미들 아이언 또는 롱 아이언으로 공략해야 한다. 더욱이 그린의 굴곡이 심해 1992년 2000년 US시니어오픈 때도 가장 어려운 홀로 꼽혔다.

/연합뉴스



왜 입을 막고 그래?

7월 서울 태릉선수촌 오픈관에서 열린 2010유스올림픽 아시아 남자핸드볼 예선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기에서 한국 이정화가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 사무총장에 이상일씨

인사 문제로 혼선을 빚었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격적으로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KBO는 7일 이상일 총괄본부장(사진)을 제12대 사무총장으로 승진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1981년 12월 KBO 창립이후 사무처 직원이 프로야구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것은 1991년 제4대 사무총장을 맡았던 안의현씨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따라 KBO는 지난 3월31일 하일성 전 사무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98일만에, 지난 2월20일 유영구 총재가 선출된 뒤 137일만에 새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됐다.

최근 개정된 KBO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됐지만 유영구 총재는 지난 3월 5개 구단 사장들과 자력식사를 같이 한데 이어 이날 오전 전화로 나머지 사장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추후 이사회 의결 대신 사장단의 서면 결의로 사무총장 인선을 절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 김제 출신의 이 사무총장은 익산 원광고와 명지대를 졸업하고 프로야구 출범 이듬해인 1983년 기록원으로 KBO에 입사한 뒤 운영부장과 홍보부장, 사무처장, 총괄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KBO의 실무통이다.

또 이 사무총장은 KBOP 전무이사과 대한야구협회 기획이사, 특임이사 등도 역임하며 야구 관련 업무에 관한한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이상일 사무총장은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여러가지 얽힌 현안들이 많은 데 총재님을 잘 보필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태환-펠프스 ‘맞짱’

26일 로마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격돌

박태환(20·단국대)이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4·미국)와 2009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다시 금메달을 놓고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7일(이하 한국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008 베이징올림픽 8관왕 펠프스는 8일부터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00m와 200m, 접영 100m와 200m 등 네 종목에 출전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오는 26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 나설 미국 대표팀 선발전을 겸해 열린다. 종목별로 1, 2위에게 로마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펠프스는 자유형 200m 세계 최강이라 미국 선발전은 무난히 통과해 박태환과 베이징올림픽 이후 1년 만에 재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박태환은 로마 대회에서 자유형 200m, 400m와 1,500m에 출전한다.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박태환은 1분44초85의 아시아 기록으로 은메달을 땀고, 1분42초96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펠프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펠프스의 신형 종목 중 자유형 200m를 비롯해 접영 200m(1분52초03)는 자신이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접영 100m는 펠프스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한 8개 종목 중 유일하게 세계 기록을 세우지 못한 것이지만 지난달 캐나다집에서 50초48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새로 쓰는 등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하지만 자유형 100m 참가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연합뉴스

이오순 KLPGA 시니어투어 2차대회 우승

이오순(47)이 2009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강산배 동아회원권그룹 시니어투어 2차전(총상금 4천만원)에서 우승했다.

이오순은 7일 강원도 문막 센추리21 골프장(파72·5천90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버디 4개로 4타를 줄여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로 지난해 시니어투어 3차전에 이어 두번째 정상에 올랐다. 마

지막 홀에서 이글 퍼트를 넣었더라면 연장 승부를 노릴 수 있었던 박성자(44·켈러웨이)는 버디에 그쳐 1타 차 단독 2위에 올랐고 문명순(50)이 3언더파 141타로 3위를 차지했다. 1라운드 단독 선두였던 구옥희(53·김영주골프)는 2라운드에서 6오버파의 난조 속에 최종합계 2오버파 146타, 단독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